



잡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

# 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12. 28.  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
과 장 : 박 범 수  
사무관 : 장 귀 표  
전 화 : 500-2389  
쪽 수 : 2P  
별첨자료 : 없음

이 자료는 2010년 12월 2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내년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497억 투입

- 바다목장(344억), 바다숲(130억), ■고기 방류(12억), 연구사업(11억) -

- 내년도 연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총 497억원이 투입된다.
  -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에 울진·태안·제주 등 시범바다목장 3곳에 174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▲연안바다목장 170억원 (17곳) ▲바다숲 130억원(12곳) ▲연어 및 어린물고기 방류 12억원 (1,215만마리) ▲기획연구 11억원(4개과제) 등 총 497억원을 투입한다.
- 울진, 태안, 제주 등 시범바다목장 3곳에는 174억원을 투입해 바다낚시터를 조성하는 등 해양관광레저 시설이 본격 도입된다.
  - 울진바다목장에는 바다낚시터와 목장체험관 건립이 추진되고, 태안바다목장(갯벌생태체험장), 제주바다목장(수중테마공원)에도 해양관광레저 시설이 조성된다.
  - 지난 2002년부터 총 307억원이 투입된 여수시범바다목장은 국내에서는 통영바다목장에 이어 두 번째로 내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. 준공을 기념하여 제1회 농식품부장관배 수중사진 촬영대회와 바다낚시 대회도 열린다.

-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안바다목장은 기존 14곳 외에 경주, 거제, 여수, 강진 등 4곳이 새로 추가되어 모두 17곳에 170억원이 투입된다. 군산, 강릉, 거제, 제주(성산) 등 4곳은 올해 완성된다.
- 농식품부는 또 인천 옹진군 백령도 등 전국 연안 12곳에 130억원을 투입해 651ha의 바다숲을 새로 조성한다.
  - 특히, 내년에는 2012 여수엑스포 개최지인 여수신항에 관람객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길이 90미터, 폭 30미터의 대형 가두리형의 교육·전시용 바다숲이 만들어져 행사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.
  - 바다숲 사업은 첫해인 2009년에는 4곳에 120ha, 2010년에는 10곳에 250ha를 조성했다.
- 이와 함께 양양 남대천 등 전국 하천 10곳에서 1200만마리의 연어를 방류해 자원량 증대는 물론 학생 및 일반인에 공개, 체험관광 사업으로 활용된다.
  - 또한, 서해(꽃게), 남해(조기), 제주(붉은솜뱅이) 해역에 총 15만마리의 우량종묘를 생산해 민간에 보급하고 방류도 할 예정이다.
- 한편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수산자원사업단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바다목장, 바다숲 사업 등 자원조성 사업 일체를 인수해 자원조성 전문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.